

이러니 철도여행 오겠나…협약만 맺고 도착하면 나몰라라

'지역사랑 철도여행' 전남 외면 왜?

강진과 장흥 등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약을 맺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지역 연계 콘텐츠 확보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과 협약을 맺은 전남지역 9개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는 열악한 지역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달리 관광객들이 기차에서 내린 뒤 이동·체험·체류를 이어갈 최소한의 교통수단조차 마련하지 않고,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하지 않아 관광객으로부터 소외(광주일보 2026년 1월 30일 7면)받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과 협약을 맺은 전국 42개 지자체 관광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 지자체 대부분은 이용객 상위권 지역과 달리 철도 도착 이후 연계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영동(2만7095명), 전북 남원(2만4523명), 경남 밀양(2만3119명)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모두 철도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시켜 주는 시티투어버스, 관광택시, 렌터카 할인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전남 대부분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교통편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철도역에 도착한 이후 관광객이 알아서 이동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흥은 지역사랑 철도여행 이용객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시티투어버스나 관광택시, 셔틀 노선이 전무했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기차를 타고 도착해도 이후 이동은 개인 렌터카나 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례(이용객 375명)의 경우 주요 관문인 구례 구역이 순천시에 있다는 이유로 연계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철도 도착 시간에 맞춘 셔틀이나 투어 노선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강진(730명)도 주민 이용 중심의 버스 노선만 운영될 뿐 철도여행객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고흥(236명)·함평(3876명) 등 일부 지역도 렌터카 할인이나 공유 모빌리티(쏘카) 쿠폰 등을 연계해주는 데 그쳤다.

체험·체류 관광상품을 연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용객 상위권 지역들은 철도여행객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를 상시 운영하거나 숙박과 결합한 상품을 구성하고 있었다.

남원의 경우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전국일주 프로그램 '레일크루즈해당'에 남원 지역을 포함시키고 팔도장터관광열차, 자전거를 연계한 애코레일, 남원미식열차 등 이색테마열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영동은 '국악와인열차' 등 데미 있는 기차여행 콘텐츠와 이번 사업을 연계해 철도 자체를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로 만들었고, 밀양은 매주 금토일 밀양역·삼랑진역에서 출발해 밀양의 대표 관광지와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희희낙락 밀양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시티투어·관광택시 운영 미흡 등 여행객 위한 연계 서비스 태부족
강진·장흥 등 콘텐츠 확보 무관심
남원·영동 등 다양한 정책과 대조 실질적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게
이동·체험·체류 함께 설계해야

익산(1만 9739명)은 '9경3락 익산기차여행'과 '렌터카 타고 떠나는 익산 고백(GoBack) 여행' 등 별도 인증 없이 즉시 50% 할인된 열차 왕복편과 패키지 여행 상품을 운영 중이고,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1일권, 각종 음식점 할인권, 여행자쉼터 쿠폰 등을 제공 중이다.

반면 전남은 특정 기간에만 운영되는 행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합평은 매년 나비축제 기간에 한해 셔틀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평상시에는 철도 여행객과 관광지를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했다.

곡성(3664명)은 철도 관광 요소를 '섬진강 기차마을'에만 의존하는 형태였는데, 그나마도 지역사랑 철도여행 이용객에게 기차마을 입장권을 20% 할인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보성(1만 1181명)과 장성(6309명)도 체험·숙박 연계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굳이 기차를 타고 갈 이유"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례 산수유, 강진 도자기 등 지역 유산 자원도 철도여행과 연결되지 않아 '따로 노는' 관광상품이 됐다는 것이 관광업계 분석이다.

철도 여행 키워드와 트렌드를 고려한 관광지 육성, 홍보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철도여행객은 혼자 또는 소규모로 움직이는 자유여행객이 많고, 시간적·경제적 허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겨냥한 역세권 기반 상품이나 숙박·체험 결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여행객은 자차 여행객과 달리 기차를 타고 내려서 바로 연결되는 역세권 중심의 관광 이미지가 형성돼 열차를 선택하게 되는데, 전남 지역은 소비자 동선과 동떨어진 여행 상품 구성으로만 꾸려져 있어 철도 여행객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미 동신대 관광학과 교수는 "영동이나 남원은 역에서 내리면 바로 관광이 가능한 '다이렉트 구조'를 갖고 관광지 접근성과 체험, 먹거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상품을 만들어 왔다"며 "코레일과 협약을 맺는 데 그치지 않고 철도 이용을 전제로 한 이동·체험·체류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실내빙상장서 겨울 즐겨요"

강진우가 다소 누그러진 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실내빙상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또 산재…화순·여수서 1명 사망·1명 중태

전남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0시 40분께 여수시 중흥동 여수국기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A(40)씨가 포장용 로봇 설비에 끼여든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순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제품 포장실 내부에서 근무하던 중 센서 오류로 로봇팔 작동이 멈추자, 점검을 위해 설비 틈새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에는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의 한 사료공장에서 70대 노동자 B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발발 당시 머리에 다양한 출혈이 있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사료 자동 분쇄기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불법 전화방 운영 혐의 등

안도걸 의원 모든 혐의 무죄

총선 경선을 앞두고 사촌동생과 공모해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A씨에게는 경선운동 관계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 2024년 2월까지 A씨 등 선거사무소 종사자 10명과 공모해 자동으로 한번에 20명을 초과해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총 5만1346건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한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대가로 총 25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 자금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고의 또는 범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400억 비트코인 분실 검찰 수사관 5명 압수수색

광주지검이 범죄 압수물로 보관하던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 압수물을 관리 하던 담당 수사관 5명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검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 인계를 하던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88개(현 시세 기준 407억여원 상당)를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콜드 월렛)에 보

관된 비트코인 잔액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으로 잔액 조회를 시도하다가,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비트코인을 분실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던 중,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직원이 고의로 비트코인 탈취를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싱사이트 운영자 검거, 비트코인 환수 등을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well
금융감독원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well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h-well
보험GA협회
KOREA GENERAL AGENTS ASSOCIATION